

##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

| 이슈 분석 |

: 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

금융시장분석실

## 요약

2025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.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킴. 이에 보험회사는 경영효율화, 금리위험관리 및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, 환헤지 비용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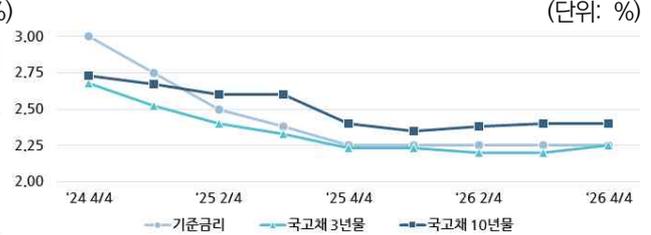
- 2025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
  -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실시한 재정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고,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 강력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2023년까지 이어짐
  - 긴축적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지만, 동시에 투자 및 소비 부진 등 침체된 경기 회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 - 이에 2024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EU, 미국 등 주요국들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인 2%에 근접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고, 2025년에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- 올해 경제성장률은 고금리 기조 완화로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2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
  -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,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(반도체, 철강 등)의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, 투자의 회복흐름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
  - 고금리, 고물가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과 소득 양극화 등으로 내수의 회복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음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1% 후반대로 예상되고, 금리는 2024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하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
  - 물가는 농산물 가격 및 국제 유가의 안정으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, 환율 상승 및 지정학적 긴장 확대는 상방요인으로,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내수부진 고착화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 - 금리 컨센서스에 의하면, 2025년 말 국제 10년물 금리는 2%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〈표 1〉 국내외 주요기관의 2025년 경제전망

발표기관	경제성장률	소비자물가 상승률
한국은행	1.9	1.9
KDI	2.0	1.6
OECD	2.1	1.8
IMF	2.2	2.0

자료: 한국은행(2024. 11); KDI(2024. 11); OECD(2024. 12); IMF (2024. 10)

〈그림 1〉 금리 컨센서스



주: 중간값을 표시함  
자료: Bloomberg(2024. 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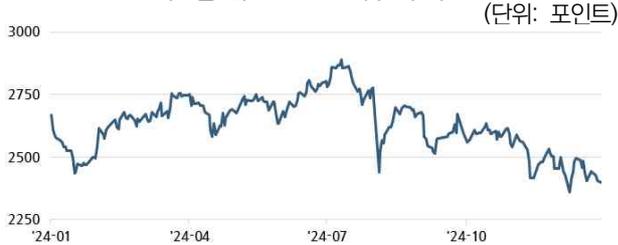
○ 하지만 2024년 말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우리나라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전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이고 있음

-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, 포괄적 감세, 고립주의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강도 및 시행시기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 간 경제성장률, 물가, 금리 등의 탈동조화(Decoupling)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
- 특히 무역환경 악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,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기준금리와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시장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

○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주식, 채권,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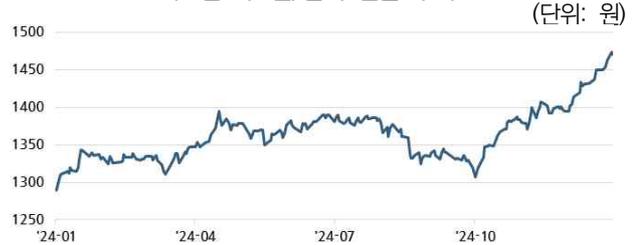
- KOSPI 지수는 2024년 12월 9일 13개월 만에 2360선까지 하락하였고, 원/달러 환율은 2024년 12월 말 매매기준율로 1,470원대까지 치솟았음

〈그림 2〉 KOSPI 지수 추이



자료: 연합뉴스

〈그림 3〉 원/달러 환율 추이



자료: 연합뉴스

○ 이에 보험회사는 경영효율화, 금리위험관리 및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, 환헤지 비용 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

-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보험산업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가 요구됨
- 금리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금리위험관리를 강화하고, 경기 둔화 및 침체는 보험수요 감소와 함께 해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강달러 흐름이 지속될 경우, 환헤지 파생상품의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롤오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환헤지 기간·수단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